



라벨인쇄기전문 제작업체 (주)도일기계공업



시대흐름 부응하는 맞춤형 제품으로 승부

최근 라벨 인쇄기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업체가 있다. 국내 라벨 인쇄기 전문제작 업체인 (주)도일기계공업(대표 정원형)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도일기계공업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문받은 라벨 인쇄기 생산에 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도일기계공업은 라벨 인쇄기 산업에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도전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또한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벨 인쇄기를 국내 및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능과 성능 및 안전성 면에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일기계공업을 찾아가 보았다.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일기계공업은 1980년 창업 이래 줄곧 라벨 인쇄기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 오면서 라벨인쇄업계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도일기계의 라벨 인쇄기들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프랑스,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의 대리점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제품의 성능에 비해 적당한 가격도 인기의 비결이다.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에는 커다란 자신감을 갖는다. 세계 유수의 라벨 인쇄기 브랜드와 겨루어도 빠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세계의 톱 브랜드에게는 기계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조금은 뒤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톱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승산이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의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톱 브랜드의 라벨 인쇄기를 구입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도일기계공업의 제품이라면 대접이 달라진다. 인쇄 품질에 있어서는 톱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정 대표는 “세계 일류의 경쟁업체 제품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지역에 해외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온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부단한 노력이 현재의 국내시장 불황 극복에 큰 보탬이 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노하우의 결정체 'D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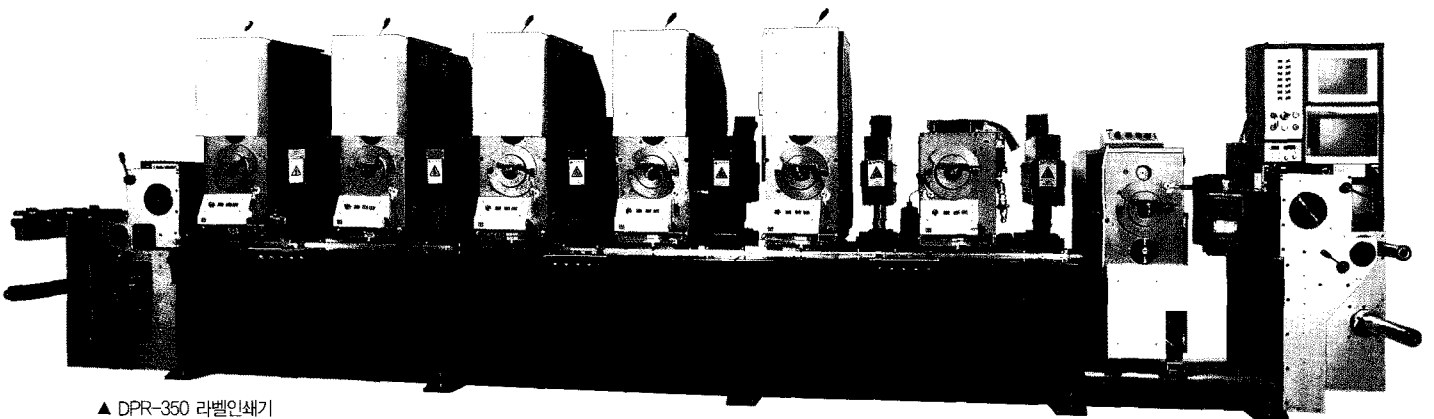
도일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벨인쇄기의 기종들은 DOLPHIN(돌고래)의 약자에서 따 온 DLP가 붙는다. 소량 다 품종을 반영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종들이다. 현재 도일이 최전방에 내세운 기종은 DLP-300(6PU6HL, 7PU7HL-B)으로 인쇄 유닛 롤러 9개가 부착돼 있다. 기술력

의 핵심은 고도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정확한 핀트다. 작업 속도에 변화를 줘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주요 부품 중의 하나인 블랭킷 롤러의 압력 조정이 간편한 조작으로 이뤄진다. 반복·양면 인쇄는 기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 물량도 증가한다. 인쇄·박압부의 송출 장치는 별도로 작동이 가능해 전기 비용도 현저히 떨어진다. 최대 송출에 의한 다이 커팅은 255mm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박압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지가 가능하다.

그만큼 효율성을 끌어 올렸다. 실린더는 각 유닛마다 1개씩 있으며 폭과 송출(300×255mm)의 도법으로 6, 7색 및 후면 1도의 인쇄가 가능하다. 정 대표는 DLP 시리즈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시돼야 한다”며 “도일에서 출시되는 기종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이 반영된 제품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일의 기종들은 어떤 외국 제품과 경쟁해도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도일이 최전방에 내세운 기종은 DPR-350(6PU7-CB)으로 실린더의 원활한 탈부착이 가능하며 메인조작판 및 자동와인더 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했다.

도일에서 출시하는 제품군들은 이밖에도 제어 방식이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DLP-4530(LMPHUV, LMPH, LMH) 등이 있다. 이 기종들은 'KIPES(국제인쇄산업전시회)' 등을 통한 마케팅 전략 외에도 해외 전시회를 통해 프랑스 등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이 곧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검증 받은 도일의 기술력은 현재 프랑스, 뉴질랜드, 중국 등지의 대리점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한편 도일기계공업은 오는 9월 8일~1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2010에 제품을 출품할 예정으로 전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향상된 성능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DPR-350 라벨인쇄기



편리하고 튼튼한 기계

정 대표는 '기계는 쓰기에 편리해야한다' 는 지극히 평범한 기계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 대표의 이 같은 기계정신은 기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기계가 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정 대표는 간편한 기계, 고장 없는 튼튼한 기계를 추구한다. 성능을 높이려면 자연이 기계가 복잡해지지만 간편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갖는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한다. 특히 기계 개발자로서 "A/S는 당연한 책무지만 A/S가 필요 없어야 한다"는 정 대표는 "A/S가 필요 없는 기계가 제작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일기계공업에서는 모든 부품의 표준화, 규격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되는 라벨 인쇄기를 완벽한 도면을 통해 표준화, 규격화된 부품으로 제품의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 도일기계공업은 A/S없는 제품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규격화된 부품뿐만 아니라 도일기계공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높은 내구성을 지닌 라벨 인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내구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대부분의 부품도 도일기계공업에서 스스로 제작하고 있다.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의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체 가공을 위한 설비에도 남다른 투자를 하고 있다. 외부가공을 통해 쉽게 만들어 갈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만드는데 라벨 인쇄기를 단순히 기계로 보는 것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술선수범을 통해 자발적인 업무환경 조성

정 대표는 작업장에서 몸소 설계, 가공, 조립에 이르기까지 직원들과 함께 상의하며 같이 일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사업 운영은 설립 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자신이 먼저 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전체 인쇄기기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가능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됐다. 단기적인 안목을 버리고 별다른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제품 관리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내 자신이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나의 사업체는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사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내 가족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안전한 일터에서 구성원들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지 고품질의 인쇄기기를 제작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회식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에 오르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는 모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눈에 보이는 이윤만을 보고 운영하지는 않는다"라며 "우리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도일기계공업에는 장기 근속자가 대부분이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도일이라는 브랜드가 라벨 인쇄기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날까지 도일기계공업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6PU7-CB 스티커

차한잔_ 정원형 대표

세계최고가 되는 날까지 앞만 보고 나갈 터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형(56)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국산 라벨인쇄기 제작이라는 한 우물을 파 온 경영인으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표명했다. 정 대표는 또 “인쇄기기 제조업은 무척 힘이 드는 업종 중 하나이지만 실타래를 풀어가듯 심혈을 기울여 운영한다면 이만큼 보람된 일도 드물다”고 덧붙였다.

1980년에 설립된 독일 경영권의 바통을 2002년에 물려받아 탄탄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정 대표의 철학은 ‘정도 경영’. DLP 300을 개발한 시점에서 봤을 때 개발 직원과 년도만 바뀌었을 뿐 30년간 도일이 추구해 온 철학이나 라벨인쇄기 전문 생산업체라는 수식어는 변치 않았다.

지나온 세월만큼의 장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다. 정 대표는 ‘철저한 사후관리는 기본이다’라고 가볍게 운을 떼 뒤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은 곧 정도 경영의 기업 이미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는 동종 업계의 현 주소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한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끼리의 덩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인쇄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쇄기종들의 국산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산화의 선행 조건에 대해 그는 “기계 단가에 들어가는 거

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전제한 뒤 “현실이 어렵다고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산 제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난 정 대표의 고향은 경북 포항. 1985년, 인쇄기기 제작업체인 흥인기계제작소에서 인쇄기와 인연을 맺은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